



김봉환 질병칼럼

## “돼지 돌림병

## 이대로 좋은가?



김 봉 환  
(경북대 교수)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되니까 약 40년전 일이다. 아버지께서 먼 소재지 장에 갔다 오셔서 무서운 「돼지 돌림병」이 우리 면에도 왔다고 하시며 걱정이 대단하셨다. 나는 그 때 돼지 돌림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렵듯이 늦가을철에 접어들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람따라 돼지병이 이 마을 저 마을을 스쳐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짐작하였으며, 운(?)이 좋으면 돼지고기를 잔치가 아닌 데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으리라.

지금 곰곰히 생각하면 그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돼지 돌림병은 돼지의 전염병,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947~48년에 전국적으로 크게 만연하였던 돼지 콜레라인 것 같다. 그 때 이후로 찬바람 이는 가을이면 산골마을까지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던 돼지 돌림병이 없어지기는 커녕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양돈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확인된 돼지 질병을 살펴보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기인한 돼지 전염병이 전체 돼지 질병 병성감정 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돼지 콜레라는 전체 병성감정 건수의 23.4%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우리나라 양돈업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염병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돈을 몇 년 경영해본 사람이면 한 두번쯤은 돼지 콜레라가 어떤 병인지를 체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한 병이며 한번 왔다하면 끝내주는(?) 그런 병임을 익히 알고 있다.

돼지 전염병은 돼지 콜레라 이외에 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일본뇌염, 살모넬라균증 등 1970년 이전에 널리 알려졌던 질병뿐만 아니라, 근래에 새로 문제되기 시작한 마이코프라스마 폐염, 돼지적리, 흉막폐염, 위축성비염,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로타바이러스설사병 같은 전염병이 줄기는 커녕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다.

돼지전염병이 발생하여 제구실을 하자면 3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① 전염병의 병원체가 ② 적당한 전과경로를 밟아 ③ 감수성 숙주에 감염될 때 발병하게 된다. 돼지 전염병의 원인체는 환돈이나 감염회복돈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돼지가 배출한 병원체가 직접 돼지에게로 전파되거나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매개체를 통해서 감수성이 있는 돼지에 전파될 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전염원대책, 전과경로대책 및 감수성 숙주대책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전염원(병원체) 대책으로서 환돈이나

● **몇푼 건지기 위해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출하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한 콜레라의 발생은 영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어느 누가 내 돼지를 “Stamping-out” 하라고 하겠는가? ●**

감염회복돈(병후 보독돈), 잠복감염돈 등이 없어야 하므로 발생농장에서는 이런 돼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새로 돼지를 입식하는 농장에서는 돼지 콜레라 발생농장에서는 절대로 돼지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종돈을 생산 보급하는 종돈장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종돈장은 폐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돼지 콜레라의 확산 및 만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돼지 콜레라의 발생이 전혀 없었던 종돈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일이다.

전염경로대책으로서는 우선, 돼지 콜레라바이러스를 보유한 돼지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돼지의 이동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배출된 바이러스의 기계적 및 생물학적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양관리 및 환경위생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현재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돼지 콜레라에 걸린 돼지를 몇푼 건지기 위해 출하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의 돼지 콜레라의 발생은 영원하리라고 본다.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환돈의 혈액 1gm 중에는 수 만마리의 돼지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돼지콜레라는 설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위와같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양돈인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돼지 콜레라가 수 십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위에 열거한 2가지 대책을 완전무결하게 하자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선 실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양돈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mping out Policy”는 돼지 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는 도장을 찍듯이 모두 찍어서 없애는 정책인데, 보상책이 잘 되어 있어 새로이 다른 곳에서 양돈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나,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어느 누가 내 농장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으니 Stamping out 하라고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인 감수성 숙주대책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돼지의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제때에 철저히 하여주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하고나면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정도로 시판되는 돼지 콜레라 백신의 효능도 우수하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시기를 놓친다거나 시술상의 결함 때문에 당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처음 양돈을 시작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여 백신접종을 게을리하다가 한번 당하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예도 많이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 다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돼지콜레라백신만은 제때에 바르게 접종하여 돌림병이 더 이상 돌지않도록 서로 돕는 슬기를 발휘합시다. \*